

친구가 되고 싶은 멧물어에게

멧물어 안녕? 나는 너와 비슷한 경험에 있는 유령이야. 나는 '깜둥이'라는 강아지를 가진 네가 부러웠어. 왜냐하면 나도 양전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거든. 그리고 너의 엄마가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내게 여러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면 나는 어땠을까?' '와! 암은 정말 죽음 처럼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었어. '나' 같으면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야. 너도 정말 슬펐지? 내가 너 옆에 있었다면 계속 너와 같이 있어 주고 위로해 줬을 텐데... ..

우리 엄마도 뇌종양이라는 병과 싸우고 있어서 큰 병원에 오래 다니셨어. 병원에서 검사 받고 늦게 오실 때면 아버지가 저녁밥을 지려주시곤 하셨는데, 그때 나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너의 엄마가 완쾌 하셨듯이 우리 엄마도 지금은 괜찮아지셨어. 매일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마치 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야.

너도 그렇게 느껴는지 궁금하다.



너와 콩깍이가 꾀돌이와 함께 할머니, 그냥씨, 얼썩 아저씨와
같은 따뜻한 이웃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것 처럼 나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맹물아! 콩깍이가 너에게 고백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솔직히 나도 8살 때 친구가 고백한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얼굴이 사과같이 빨그레
해지고, 따뜻한 무언가가 몽글몽글 피어났다
는 장면이 찰떡같이 이해가 되었어. 정말로 너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거 맞지? 그래서 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힘이 켜 벌어질 정도로
놀라고, 가슴이 몽글몽글 해지기도 했어. 맹물아, 나중에 너랑
콩깍이하고 꾀돌이까지 만나서 놀면 좋겠다. 그때는 나도
내 비밀 별명을 알려줄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럼 잘
지내.

2022년 7월 29일

너무 무거운 여름날에
너와 친구가 되고 싶은 우렁이가.

